



NC 선수단은 7일 마산구장에서 첫 소집훈련을 시작한 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군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기 위해 이처럼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 연고지를 이전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

스포츠동아DB

야구팬 우롱한 창원시의 막가파 결정

섬성 스페셜

NC 홈구장터 선정 무엇이 문제?

부적격 판정 '진해 육군대학' 밀어붙여 정치 꿈수 인한 막대한 혈세 낭비 예고 시민 반대에도 "시민 위한 결정" 억지 "KBO 말이 많다"…불통 행정도 눈총

'0.01%'만을 위한 최악의 선택이다. 100명도 되지 않는 창원 정치인들이 100만 창원시민, 많게는 수백만 명의 야구팬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택했다.

프로야구는 그동안 10구단 시대 개막과 더불어 광주, 대구, 창원에서 새롭게 문을 열 최신식 야구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 한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30일 창원시 박완수 시장과 시의원들의 억지 밀어붙이기로 큰 재앙의 씨앗이 싹텄다.

박완수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진해 육군대학 부지에 새 야구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시 스스로가 발주한 새 야구장 부지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다. 1000만 관중을 향해 달리는 프로야구에는 큰 장애물이자, 창원 시민들에게는 향후 수십 년간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결정이다.

육군대학 부지는 구 창원과 마산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인프라가 최악인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국방부



창원시가 30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NC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새 야구장의 입지로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창원 | 연합뉴스

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창원시 정치인들은 '창원-시청, 마산-도청, 진해-야구장'이라는 분배를 통해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꼼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진해에 사는 시민도 창원시 홈페이지에 "솔직히 도로가 확 늘어나지 않는 한, 평일 관중 2000명 이상도 힘든 곳"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창원은 프로야구 연고지중 가장 인구가 적기(수원 114만·창원 108만) 때문에 야구장 위치가 더욱 중요하다.

NC 내부에서 "홍행을 위해선 진해 신축구장보다는 관중석이 1만석 이상 적지만 현재의 마산구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창원시는 이날 육군대학 부지를 발표하면서 최적의 장소로 꼽힌 창원과 마산종합운동장의 단점(창원-야구장 건설로 국제공인경기장 자격 상실, 마산-중복시설 문제)만 늘어놓았을 뿐 진해의 교통인프라 개선방안, 공사완료 시점 등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심각한 자기모순을 드러

내기도 했다. "새 야구장은 NC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창원시민들의 스포츠체육시설이다.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하게 하는 것이 시의 임무이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반대한 곳에 야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말이 많은 데 상급 기관도 아니다. 유감스럽다", "NC의 예치금 100억원이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불통과 책임전가식 태도를 보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k

■ 9구단, 마라톤 회의끝 내린 두가지 결론



NC는 창원시가 새 야구장 부지로 발표한 진해 육군대학 부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2년간 기다려준 창원 팬들을 위해 일단 마산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문 감독(가운데)을 비롯한 NC 선수단은 올해 마산구장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다.

스포츠동아DB

NC "진해부지 수용 불가"

"시민 뜻 반영안된 정치적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2년간 2군 응원 팬들 위해 마산구장 잔류는 OK"

30일 창원시가 예상대로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새 야구장터로 발표하자 NC는 마라톤회의를 시작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최악의 상황. 고심 끝에 NC는 2가지 원칙을 세웠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된 육군대학 부지 야구장터는 수용하기 어렵다'와 '2년간 기다려준 창원 팬들을 위해 마산구장에서 야구를 하자'는 것이다. 향후 흥행과 관리비용,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연고지 이전 카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일길 바란다는 뜻이다.

NC 배석현 단장은 먼저 연고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지난 2년간 창원 팬들이 1군 데뷔를 손꼽아 기다렸다. 1군 경기도 없는 팀에 많은 사랑을 보내줬다. 퓨처스(2군) 리그 경기도 응원을 해줬다"며 "다른 방법(연고지 이전)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단장은 이어 "창원시가 새 청사 결정에 대해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구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창원시의 말대로 NC는 새 야구장의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인 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창원시가 진해에 야구장을 건설하려면 공기 단축과 교통인프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방법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배 단장은 "창원시가 끝까지 진해를 고수하고 교통인프라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고 묻자 "창원시의 플랜B를 기대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경호 기자

■ 10구단 유치 KT-수원의 약속은?

2만5000석 증축만으로 OK

기존구장 리모델링 돌입…돛구장은 강제조항 아나

창원시가 발표한 새 야구장 후보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그렇다면 10구단 KT는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승인을 받아냈을까.

KBO는 KT를 10구단 주체로 결정하면서 NC를 9구단으로 승인했을 때처럼 예치금 10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예치금의 환급 조건은 다르다. KT는 NC와 달리 야구장을 신축하지 않아도 5년 뒤 1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30일 "KBO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최소 5년간 구단 운영과 2만5000석 이상 규모의 야구장 건설을 조건으로 예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의 연고도시 수원시는 이미 기존 야구장을 2만5000석 이상의 규모로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KT와 수원시는 10구단 유치 단계에서 돛구장 건설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한 조항은 없다. 돛구장 건설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원시의 의지에 달려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교통 최악…평일 관중 2000명도 못온다”

■ 진해 육군대학 부지 어떻게?

내년 11월후 소유권 이전…공사도 지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뿐 아니라 창원 시민들조차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최악의 장소라고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이다. NC 이상구 부사장은 "교통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구 창원과 구 마산에서 진해로 가는 길은 굉장히 혼잡하다"고 말했다. 108만명의 창원 인구 중 진해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18만명. 프로야구 흥행을 위해선 구 창원과 마산에서 관중이

유입돼야 한다. 창원에서 안민터널, 마산에서 장복터널을 지나야 진해로 진입할 수 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한계면에 2만명 이상의 관중을 감당하기 힘들다. 또 육군대학 부지는 2014년 11월 이후 국방부에서 창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당장 공사가 가능한 창원·마산 종합운동장과는 약 2년의 시차가 생긴다.

창원시가 발주한 '야구장' 신규 건립에 대한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육군대학 부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 교통 접근성과 소유권 이전 문제였다.

이경호 기자



창원시가 NC의 새 홈구장터로 선정한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의 전경. 교통 체증과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하면 야구장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창원 | 연합뉴스

“혹시나”…같은 듯 다른 전북과 롯데 속내

■ 이해관계 얽힌 지자체·구단 반응

NC가 만약 창원을 떠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 얘기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와 구단들의 계산법은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기엔 이르다"고 말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구단 유치전에서 패한 전북의 한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NC를 유치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같은 지자체끼리 예외에 어긋난다"며 창원을 의식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비공식을 전제

전북 "야구장 완공 시기 앞당길 수도" 롯데, NC 새연고지 울산 가능성 촉각

로 여운을 남겼다. "어딘가에서 쓴 기사를 보니 우리가 전주에 새 야구장을 2016년에 완공한다고 돼 있던데,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2015년 3월까지 야구장을 짓는다고 10구단 유치전 프레젠테이션 때 분명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발 더 나갔다. "만약 전북에 프로 야구단이 온다면 완공시기를 더 당기는 것도

가능하다."

롯데의 속내도 흥미롭다. '눈엣가시' 같은 NC가 창원을 떠난다면 내심 속이 시원하겠지만, 문제는 NC의 울산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롯데 구단의 핵심 관계자는 "NC의 울산행에 대해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며 신중해하면서도 "롯데는 (제2홈구장으로) 울산시와 올해 1군 6~9경기를 치르기로 약속했고, 2군도 경기를 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matrs121